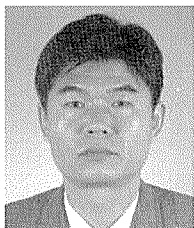


지령 100호 협회 동위원소 뉴스에 바란다



**조 인 묵**  
과학기술부 방사선안전과  
사무관

국내의 방사선관련 동정을 충실히 소개하여 회원간 정보교류와 산업발전의 장으로써 자리매김 해온 RI NEWS의 지령 100호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아울러서 금년 협회 창립20주년을 같이 축하하고자 한다.

나는 RI NEWS를 보면서 방사선관련 산업계의 최근동향을 확인하고, 새로운 기술발전 소식을 접할 때면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을 위한 정책수립에 많은 도움을 얻기도 한다.

방사성동위원소가 공업, 농업, 생명공학, 의학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이용되어 국가 산업 발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 할 것이다. 동위원소 이용기술을 더욱 확대·보급하고 국민의 생활향상은 물론 국가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정보제공은 물론 대국민 홍보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협회의 역할은 앞으로 계속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도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술진흥을 위해 관련법령을 제정하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위원소 이용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연구개발 투자와 협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확보의 지연으로 동위원소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협회를 중심으로 이런 문제를 사전에 대처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끝으로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창립20주년을 맞이하여 RI NEWS 제작 관계자 여러분의 그 동안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RI NEWS가 지령 100호 발행으로 최고의 전문지로서 위치를 굳건히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최 호 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안전센터장

한달에 한번 내게 새로운 정보를 가져다주는 협회 RI NEWS가 벌써 100호를 맞이한다니 느낌이 새롭다. 우리나라 유일의 방사선 관련 전문지인 RI NEWS를 나는 한번도 놓치지 않고 보고 있다. 또한 RI NEWS가 여러 해를 거듭한 만큼이나 정보가 알찬 것도 독자로서 또한 방사선 관계자로서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우리나라의 방사선관련 산업의 경이로운 발전과 더불어 그 이용기관수도 매년 증가하여 현재 2,600기관에 이르고 있다. 협회는 방사선 동중업계의 대표하는 민간단체로서 동 기관에서 나오는 다양한 목소리를 그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충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RI NEWS 지령 100호 발간과 아울러, 협회 창립20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협회가 국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증진과 안전조성에 크게 기여를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에서 발간하는 월간 소식지 「RI NEWS」의 통권 100호 탄생을 500여명의 대한핵의학기술학회 회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특히, 협회창립 20주년을 맞아 협회지 명칭도 「동위원소 뉴스」로 변경하고, 명예기자제도를 실시하는 등 협회의 그동안의 노력에 우리회원 모두 큰 박수를 보낸다. 협회 편집실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더욱 더 고객이 찾는 협회지로 거듭나기 위한 두가지 바람을 적어본다.

**첫째, 회원의 소식을 전달하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면 좋겠다.**

2005년 1월호부터 칼라색도로 변신되었으며, 또 5월호부터는 현행 16면에서 20면으로 증면할 예정이라고 들었다. 의학정보를 정기적으로 삽입하고 방사선 관련 내용 이외에도 생활 주변의 유익한 정보를 수록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협회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협회의 업무소식과 회원들의 동정을 전달하는 기본역할에 더욱 충실해 주면 좋겠다.

협회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회원들이 협력하여 설립하고 유지하는 회”이다. 협회지 독자층을 회원이외의 다양한 계층까지 확대하다보면 자칫 초점이 흐려질 수도 있을 것이다. 방사선 관련 이용통계와 행사 뿐 아니라 그룹별 소모임, 개인동정 등에 관한 소식이 좀더 세부적으로 재미있게 다루어지면 좋겠다. 회원들이 협회지를 보며 한해를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활용도가 많은 코너가 많게 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활용가치가 있는 특화된 정보를 제공하면 좋겠다.**

정보화시대에 살지만 자료는 많은 것 같은데 정작 쓸만한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상을 “DRIP(Data Rich, Information Poor) Syndrome”이라고 외국에서도 표현되는 걸 보면 어디서나 마찬가지로 보인다. 협회지가 아무리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해도 독자들이 그때그때의 정보로서의 활용가치를 찾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물건을 팔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걸 살 사람의 마음을 끊임없이 읽으려는 노력 하나만 제대로 해도 당신은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이미 알고 있는 셈이다.” 어느 성공한 기업인의 말인데, 우리협회지를 만드시는 분들이 격변하는 환경에서 협회의 회원이 요구하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상시적인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별 볼 일 없는 자료라도 우리회원들에게 적기에 적절한 특화된 정보로 만들어 제공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정 윤 영  
대한핵의학기술학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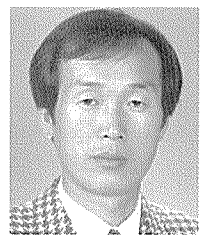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창립 2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에 RI NEWS 100호 특집호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매월 발행되는 RI NEWS는 동위원소회보와 함께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의 발자취를 기록하는 매체로서 그리고 정보화 사회의 동위원소 지식 사랑방으로서 최신 소식을 전하고 같은 배를 탄 동료로서 참여의식을 부추기는 공간으로 충분히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매월 RI NEWS를 받아볼 때마다 방사성동위원소와 삶을 같이하고 있구나하는 느낌을 받는다. 동위원소 관련하여 일어났던 사소한 일까지도 기록되어 있고 웹사이트에 등재되어 관련 기록 자료가 필요할 때마다 인터넷으로 다시 볼 수 있어서 더욱 좋다.

RI NEWS 100호 특집 발간은 모자란 일손을 모아 협회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고 회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협회의 처절한 몸부림의 결실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작은 일들이 모여 오늘의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가 뿌리 깊은 나무로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다면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국내외 학회 개최 안내에 대한 고정란을 마련하여 회원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주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끝으로 한국방사성동위원소 협회와 더불어 RI NEWS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한 현 수  
한국원자력연구소  
하나로이용연구단  
동위원소이용연구부 부장



손 성 한

농촌진흥청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농업연구관 이학박사

우리나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산업, 연구, 교육 등의 분야에서 친밀한 정보매체로 성장해온 RI News가 2005년 4월로 지령 100호를 발간하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이는 협회의 모든 직원이 방사성동위원소 분야 발전에 대한 사명 의식과 봉사정신이 바탕을 이루어 얻은 성과로 판단된다. 아울러 20년 동안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산업의 발전 및 업체간 교류와 이해증진에 힘써온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에 창립 2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협회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협회가 더욱더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RI News는 독자에 따라서는 미흡한 부분도 지적될 수 있겠으나 유관기관 및 회원사 동정, 정책홍보 및 정보마당, 동위원소에 대한 궁금한 사항, 질의 응답 등 독자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성심껏 전달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충실한 것으로 판단한다. 앞으로도 RI분야의 핵심적인 매체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독자의 지속적 관심과 협조가 요구되며 협회에서는 독자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아이디어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지면내용 중 “독자 디카코너”, 인터넷 자유게시판의 주요한 내용을 인용하는 “독자의 소리” 등 부드러운 내용도 추가하고 지령 100호를 기념하여 시행하는 “명예기자제도”가 도입되면 보다 독자의 관심을 붙잡는 RI News가 되리라 확신한다. 물론 분량이 적어도 끊임 없이 내용 소재를 수집하여 월간지로 발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21세기 우리 방사선계의 개척자 역할을 자임하는 명확한 사명감을 갖고 더욱 알찬정보로 가득 찬 「동위원소 뉴스」를 발간하는데 모든 협회 직원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라며 본인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다시 한번 지령 100호와 협회 창립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이 강 우

포스코 광양제철소 부장

1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방사선분야 산업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로서 RI NEWS 1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이다.

RI NEWS 통권 99호까지 긴 세월 구독자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신 기고자, 편집자 및 관련 인사들에게 100호를 맞이하여 지면을 통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1985년 9월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조성, 안전증진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발족한 이래 20여년동안 협회는 수출입위탁 업무, 피폭관리, 교육훈련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와 업적을 달성 하였으나 정작 산업계의 RI종사자들에게는 회원사 및 유관기관의 동정과 폭넓은 일반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인 RI NEWS가 최고의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도 회원사들의 정보 공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지면이 허락한다면 방사선안전관리 BEST PRACTICE와 같은 코너로 일선 현장에서 일어나는 우수안전관리 사례를 소개하는 것도 좋은 뉴스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방사선 및 RI를 이용하는 2,000개이상 기관중 약 50%가 산업체이고 현장 대부분 장치는 수입산이며 2,000억 이상의 경제 규모로 발전하였기에 협회가 앞장서 국내기술 육성과 산업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회원사 상호간 이익이 될수 있도록 RI NEWS라는 좋은 매체를 활용하여 주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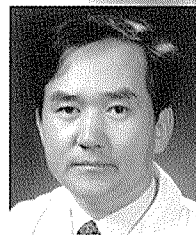
그동안 8년이 넘도록 RI NEWS와 함께 한 모든 분들의 높은 이상과 미래를 위한 열정과 정신이 식지 않기를 기대한다.

「RI NEWS」 1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산업체, 학교, 연구소가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RI NEWS」가 발행되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방사성동위원소계의 긴급한 현황이나 관련 종사자의 동향을 알기는 어려웠다.

「RI NEWS」는 동위원소협회의 운영, 동위원소와 원자력과 관련된 최신 지식, 방사성동위원소 종사자의 교육 및 종사자의 중앙등록센터 구축사업에 관한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어왔다. 특히 의료계에 종사하는 저와 같은 회원들도 「RI NEWS」를 통하여 다른 산업계나 유관기관의 동정을 알 수 있게 되어 회원 상호 간에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특히 원자력 관련 법규가 새롭게 제정되거나 수정된 경우 신속하고 알기쉽게 지상 설명을 해주어 실제 업무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러한 「RI NEWS」의 역할은 원자력 및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하여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계도에도 중요하게 이용될 것이다.

앞으로도 「RI NEWS」는 동위원소협회의 내부소식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관리 등과 같이 회원들이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내용을 정확하게 전해주시기 바라며, 모든 회원 기관과 개인종사자의 권리 증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100호 「RI NEWS」 발간을 충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재 태  
경북대학교병원  
핵의학과 교수

어느 덧 RI NEWS의 지령이 100호에 이르렀다. 충심으로 축하하는 바이다.

RI NEWS는 1997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8년 동안에 걸쳐 우리 방사선계의 구석구석을 밝게 비추며 자세한 소식을 전해주는 등불로서 또는 소식통으로서 제법 늙름한 모습으로 자라서 이제 100호를 맞이했다. 그러나 100호는 중요한 고비이긴 하나 아직 어린 단계에 속한다. 앞으로 100수를 바라보며 그 넘어 까지 계속 가야할 길은 멀기만 하다. 인생에 비유하면 태어나서 겨우 그 모습이 또렷해진 100일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노련해질 때까지 더 달려 가야한다.

그간 발간된 지면을 대강 훑어보면, 글자모양, 줄 간격 등이 약간씩 변화가 있었고, 색상도 조금씩 달라져왔다. 내용에 있어서도 큰 틀은 변함이 없으나 약간은 보완 또는 추가된 흔적이 엿보이긴 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글자 체제나 색상이 친근하고 눈에 얼른 들어올 수 있도록 시각적 효과를 좀 더 높여 주었으면 싶고, 내용 면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와 닿을 수 있는 소재를 좀 더 다루었으면 싶다. 독자 개개인의 유익과 실용적인 기사들이 되도록 많이 섞인다면 정이 듬뿍 들고 스스로 기다려지는 소식지가 되리라고 믿는다.

끝으로, 참고삼아, 지명 「RI NEWS」가 영문자만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딱딱한 감이 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혹시 「RI 뉴스」 혹은 「RI 소식」과 같이 한글을 일부 섞든지 하면 딱딱함이 다소 덜하지 않을까? 이것은 한갓 노파심일 뿐이다.

쉽 없이 꾸준히 발전하여 친숙하고 알찬 방사선 소식지로 커나가기를 바라는 바이다.



정 운 혁  
부산대학교  
방사선안전관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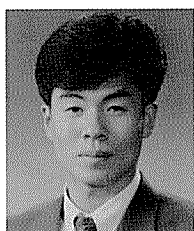


주 광 태  
고려공업검사(주) 대표이사

우리 협회 월간 RI NEWS 100호와 협회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의 발전이 있기까지 봉사·협조하여 주신 협회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RI이용 기관수는 창립 당시에 비해 크게 증대되어 2,000여 기관에 이르고, RI 면허자도 6천여명에 이르러 전문기술 분야로서의 위상 정립이 요구되는 시기라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RI이용자의 공동관심사를 대변하고 이용자 중심축이 되어 RI이용 정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민간 공익단체로서 협회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많은 협회 업무 중 RI에 관련된 다양한 소식을 수집하고, 조속히 관련자에게 알리는 매스미디어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일 것이다. 그간 동위원소회보와 홈페이지가 미디어 역할을 하고 있으나 RI NEWS는 한정된 적은 지면에 그달의 다양한 전문소식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보게 되어 RI활동의 산 역사가 되고, 보관도 용이하여 추후에 필요한 자료를 찾아보거나 과거의 활동을 회고하며 미래를 설계하는데 적절한 자료의 특징으로 현대 정보화 시대에 부합되는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전문소식지라고 생각한다. 금번 편집위원회에서 알찬 소식지로 거듭나기 위해 제호를 동위원소 뉴스로 바꾸고, 안전관리자 코너와 명예기자 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본다. 그러나 IT의 발전으로 종이 뉴스 구독률이 감소하는 추세에 불필요한 공백과 사진 지면을 줄이고 한 소식에 대한 깊이와 양보다는 현재보다 더 많은 국내외 다양하고 많은 소식을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게재하고, 기사 끝에 홈페이지나 연락처를 기재한다면 상세한 정보는 별도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처의 많은 기자의 모집·포상제도 마련과 이용기관수, 면허자수, 교육기관 및 대국민 홍보 등을 고려할 때에 발행 부수를 대폭적으로 늘렸으면 한다. 또한 멀티미디어시대에 대응하여 필요한 동영상, 컬러 영상 및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상호 보완하여 단계적으로 실행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끝으로 더욱 알찬 월간 동위원소 뉴스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합심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최 경 순  
서울대학교  
방사선안전관리자

1997년 1월 처음 발행하게 될 당시만 해도 12면의 지면을 어떻게 채어나하는 걱정과 우려 속에서 태동된 RI 뉴스가 벌써 창간 100호를 맞이하게 된다니 전 회원(사) 모두의 기쁨이고 축하할 일이라 하겠다. 돌아 보건데 RI 뉴스는 현재 16면으로 창간 당시 보다는 4면이 늘어났고, 뉴스와 기사 내용 또한 짜임새 있게 구성하여 분기별로 발간하는 동위원소회보의 두 달간의 갭을 메꾸는 역할을 충실히 하여 양·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본다.

예나 지금이나 백(百)이라는 숫자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 예로부터 백일이 되면 남아(男兒)와 여아(女兒) 구분 없이 무탈하게 자란 것을 대견하게 여겨 축하 해주는 풍습이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는 방송사 프로그램, 연인들의 만남 등 거의 전 분야에서 축하의 메시지로 쓰이고 있다. 우연의 일치인지 RI 뉴스 100호(100개월)와 같이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는 방사성동위원소 중에 100개월 정도의 반감기를 지니고 있는 Europium(원자번호:154, 반감기:8.5년[102개월])은 화학기호로 Eu로 표기하는데 Eu는 접두사로 선(善), 우(優), 호(好), 양(良)으로 넉넉함, 옳고, 좋고, 경사스러움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또 유럽공동체(EU)로도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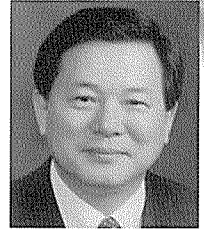
100호 축하 메시지로 온 Eu의 뜻과 같이 RI 뉴스가 지금보다 한층 더 넉넉하고 경사스러우며 동위원소 가족 모두의 좋은 공동체로 자리를 잡아 가길 바란다. 다시 한번 RI 뉴스의 100호 발간을 축하하며 200호 때는 동위원소회보와 RI 뉴스지를 차별화와 특성화 하여 동위원소회보는 회원(사)의 행사, 소식, 일반적 정보 등으로 구성하고, RI 뉴스는 전문 기술 학술지 형태로 구성 하였던다는 소식을 기대해 본다.

월간 "RI NEWS" 통권 100호 발간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이 뉴스 발간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 را 드리며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에 관한 조성과 방사선 안전의 확보 및 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및 회원사 관계자, 회원 및 동위원소 이용 분야의 종사자 모든 분들에게 충심으로 축하를 드린다.

지금까지 회원사, 회원 및 종사자에게 유익한 정보와 소식을 전해 온 전통을 계속 잘 유지하면서 보다 더 열려 있는 동위원소 뉴스로 발전시켜 주실 것을 바란다. "RI NEWS"에서 좋았던 것은, 질의-응답 형식으로 편집한 "이것이 알고 싶다"에서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요약 정리와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는 "정보마당" 등이었다.

뉴스지에 추가로 몇가지 바라고 싶은 것이 있다면, 현재의 협회, 유관기관, 회원사 및 국내·외 동정 중심의 편집에 아울러 회원 및 일반인이 관심있어 할 일상생활 중심의 소재를 좀 더 개발하여 반영하고, 일반회원 또는 일반인의 참여를 유도하여 정보나 소식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며, "RI NEWS"의 인쇄본 뿐 아니라 구축되어있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내용을 e-book 형태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던 한다.

다시 한번 통권 100호 발간을 축하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



하 기 수  
(주)아거스 대표이사

먼저 협회 창립 20주년과 RI NEWS 통권 1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협회 설립 목적이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증진과 안전조성이라는 상호 모순점을 안고 있음을 감안할 때, 두 가지 모두 만족시키며 발전해 온 협회의 현 모습을 보며 임직원 여러분의 깊은 노고에 감사드린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해야 할 일도 많고, 새로 추진해야 할 사업도 많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 몇 가지를 부탁드리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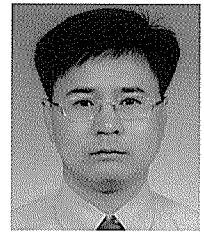
첫째, 협회가 회원의 권익 및 친목도모를 위하여 정기적인 모임을 주선하여 회원 서로간의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둘째, 제도 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기대한다. 사용자들로 구성된 제도개선 조직 등의 운영으로 방사선이용 활성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적극 창출하여 주시기 바란다.

셋째, 선진 방사선기술의 도입에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 국외 선진기술도입을 위하여 지금의 해외 유관기관과의 여러 협력활동을 보다 더 발전시켜 나가 주시길 바란다.

협회가 이제 20살이라는 성숙한 청년이 되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소유한 조직으로 성장하였으니 미래가 매우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협회 임직원 여러분의 일일 건성하심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증진 및 안전문화 확립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주시길 기원하는 바이다.



한 경 호  
에이젠바이오(주) 차장